

# “가뭄도 넘겼는데… 쪽정이 벼라니” 끝내 통곡

**르포-추석 20일 앞두고 애끓는 농심**

**겸태풍에 황금 들녘 백수현상 울화통**

**영광선 피해보상 요구 논 갈아엎기도**

“가뭄에다가 태풍까지… 올해 농사 는 끝났어.”

10일 오후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간척 농경지 일대, 추석을 앞두고 잘 어문 황금빛 낙알을 매달고 있어야 할 때

이지만, 온통 하얗게 변한 벼 이삭만 눈에 들어왔다. 이 곳에서는 농도 전남의 황금 들녘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점점 하얗게 변하고 있는 벼 이삭을 만지자 아래 부스러졌다. 알곡은 들어있지도 않았다. 썩어서 붉게 변한 벼이삭은 물컹거렸고, 손으로 누르자 물은 물이 흘러나왔다.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미 대부분 쪽정이로 변해버려 실한 악곡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일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양재희(54)씨는 벼이삭을 만지며 탄식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그에게도

올해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올 봄 유례없는 가뭄때문에 양씨는 지난 6월 중순에야 겨우 논에다가 물을 대고 모를 심었다. 늦었지만 내심 풍년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태풍 ‘볼라벤’과 ‘데빈’이 몰아치면서 그의 희망은 한 순간에 무너졌다. 볼라벤의 강풍에 어린 벼가 심하게 흔들렸고 옆진 데 던친 격으로 강풍이 도로 건너 바다의 해수까지 실어아 퍼부었다. 며칠 뒤엔 텐바이 폭우까지 쏟아부었다.

결실기를 앞둔 벼는 끝내 태풍을 견디지 못했다. 한창 이어가야 할 벼가 모두 썩어버린 것이다. 양씨는 “추석을 앞두고 막막하기만 한데, 정부가 내놓은 책상머리 정책이 올화가 이삭이 시커먼 진흙에 파묻히는 데는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다. 허망했다.

이날 전국 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을갈아 엎었다. 직립 트랙터에 올라탔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는 종자 선택부터 놓지마, 잡초 제거 등 지난 4~5개월을 이 논에서 땀을 흘렸다. 하지만 트랙터가 지나가고 벼가 모두 썩어버린 것이다. 양씨는 “추석을 앞두고 막막하기만 한데, 정부가 내놓은 책상머리 정책이 올화가 이삭이 시커먼 진흙에 파묻히는 데는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다. 허망했다.

이날 전국 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10일 오후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에서 농부 양재희(54)씨가 ‘백수 피해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자신의 논을 트랙터로 갈아 엎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품격재판 하도록 법관 상시 평가”

**김용현 광주고법원장 취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관이 법정에 들어선 국민으로부터 상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57·사법연수원 11기)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10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상시 법정질문조사’를 제시했다. 법관이 품격을 갖춘 재판을 하고 있는지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이 평가하도록 해 재판과 정성을 되돌아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김 원장이 지난 2010년 대전지방법원장 당시 도입해 호평을 받았으며, 그 뒤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수원·부산·울산·특허법원 등이 실시하고 있다.

김 원장은 “법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신경쓰이고 부담스러운 제도”라며 “하지만 지금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34년만에 광주에서의 근무가 처음이라는 그는 “새로운 만남을 즐기고 부대낄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찾게 된 것이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서울고법원장을 거쳐면서 가사 및 소년사건 전문 법조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굳혔다는 김 원장은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된 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자공고’ 신청조차 안해

### 전남은 광양고·해남고 2곳 추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추가 선정사업에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4개교를 추천받아 자공고 선정 심의를 벌여 이중 전남지역 2개교(광

양고·해남고)를 포함해 전국 19개교를 자공고로 추가 선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고교평준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로 추가지정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교과부 추가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교육과정과의 한 관계자

### 초당대 내년 신입생 반값등록금

무안 초당대가 내년 신입생에 한해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초당대의 조치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으로서는 첫 사례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초당대는 10일 등록금 인하 추세에 발맞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한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건은 광주·전남북지역 고교 출신자여야 하며, 내년 1년간만 등록금

의 50%를 지원한다.

초당대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34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70만원 선에서 신입생 등록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기숙사인 생활관비를 4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재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는 “일반계고 15곳 중 이미 3곳이 자공고로 운영 중인데 추가 선정하면 자공고의 독자성뿐만 아니라 협평성에서도 일반고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재심거쳐 학폭 기재’

#### 전남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1차 징계를 받은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생활태도를 개선하면 다시 심의를 해 학생부에 학폭 사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방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는 하되 낙인 효과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 시 우려되는 불이익 등에서 구제 방법을 열어두는데 초점을 둔 방안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물 06시 12분

해진 18시 45분

달辱 01시 05분

달진 15시 23분

#### 일교차 커요

당분간 오전에는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 주	맑음	18/28°C
목 포	맑음	18/27°C
여 수	맑음	21/26°C
나 주	맑음	17/29°C
완 도	맑음	17/29°C
구 레	맑음	17/28°C
강 진	맑음	17/28°C
예 남	맑음	16/28°C
장 흥	맑음	16/28°C
순 천	맑음	16/28°C
영 광	맑음	17/27°C
진 도	맑음	16/27°C
전 주	맑음	17/28°C
군 산	맑음	17/26°C
남 원	맑음	15/28°C
혹 산 도	맑음	19/25°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식증독자수
서해 남부	일비다	동~남동	0.5~1.0m	지역별
남해 서부	일비다	북동~동	1.0~2.0m	경기
	만비다	북동~동	1.5~2.5m	높음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서해 남부	일비다	동~남동	0.5~1.0m	04:15
	만비다	동~남동	0.5~1.5m	목포
남해 서부	일비다	북동~동	1.0~2.0m	22:56
	만비다	북동~동	2.0~3.0m	15:53

◇주간날씨

날짜	날씨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최저/최고	19/27	21/26	18/25	17/25	18/26	18/26	18/26

## 조선대병원·광주소방본부 발빠른 대처

### 무등산 추락 등산객 구했다



장으로 데려왔다. 헬기 수송 결정 후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박용진 교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헬기기에 태워 13분 만에 조선대병원에 도착했다. 빠른 응급처치로 환자는 일부 골절상 외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기존에는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바로 헬기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조선대 병원과 광주시소방본부의 협약에 의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현장에서부터 빠른 처치를 시작하는 한 박자 빠른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상품기간 : 2012.09.01 ~ 2013.02.28 \*버스패키지 가격금 50,000원

### 특급호텔과 함께~ 9월 특가여행!!

2박 3일



신라호텔 (9월 11~13일, 16일, 17일, 27일 출발)

+ 항공료, 호텔조식, K5 렌트카 48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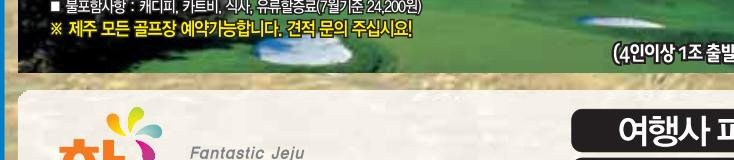
+ 유류할증료 불포함, 인원추가, 전망추가 별도문의 1인 455,000원 ~ 515,000원



롯데호텔 (9월 16일, 17일, 23~25일 출발)

+ 항공료, 호텔조식, K5 렌트카 48시간

+ 유류할증료 불포함, 인원추가, 전망추가 별도문의 1인 445,000원 ~ 455,000원



여행사 파트너 모집

환상제주 여행문의

NO.1 제주여행전문랜드